



국 내 소 식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련 조직개편

종전 : 3차관보(20과)		현행 : 자원정책실장(13과)	
자원정책국 (7개과)	자원정책과 자원협력과 광업진흥과 해외자원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지도과 대체에너지과 에너지기술과	실장직속 (4개과)	자원정책과 자원협력과 에너지관리과 에너지기술과
산업정책국			
석유가스국 (5개과)	석유정책과 석유수급과 유전개발과 가스기획과 가스관리과	자원정책 제1심의관 (4개과)	석유정책과 석유수급과 가스기획과 가스관리과
전력석탄국 (7개과)	석탄산업과 석탄수급과 광산지도과	자원정책 제2심의관 (2개과)	광산진흥과 석탄산업과
	전력정책과 전력수급과 전원개발과 원자력발전과	자원정책 제3심의관 (3개과)	전력정책과 전원개발과 원자력발전과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련 인사동정

<장관> 박재운, <차관> 박운서, <자원정책실장> 김태곤, <국장급> 자원정책 제1심의관 최홍건, 자원정책 제2심의관 김효성, 자원정책 제3심의관 서주석, <과장급> 자원정책과장 류창무, 자원협력과장 박영국, 에너지관리과장 김호철, 에너지기술과장 안정규, 석유정책과장 김동원, 석유수급과장 강운관, 가스기획과장 김영준, 가스관리과장 허범도, 전력정책과장 김철두, 전원개발과장 이영수, 원자력발전과장 허문, 광업진흥과장 김창배, 석탄산업과장 김일광, <사무관> 전원개발과 : 오창선, 한장석, 김춘규, 이승락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구랍 11월 30일 민주자유당은 당무회의를 열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의 퇴직시 재선임기간을 30일로 연장, 매년 1회 이상 전기공사 면허발급 의무화 등 주요내용으로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내용 요약>

제 목	현 행	개 정 안	기대효과
안전관리 자 등의 재선임기 한의 완화	· 안전관리자 등이 퇴직한 경우 퇴직 일로부터 10~15 일 이내에 다른 안 전관리자 등을 선 임해야 함 -- 전기, 액화석유 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 자 : 15일 -- 환경관리인 : 10일	· 안전관리자 등의 재선임기 한을 30일로 연장	·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 업의 안전관리 자 선임에 대 한 애로 해소
전기공사 업 진입규 제 완화	· 상공자원부 장관 은 원칙적으로 매 년 1회 이상 전기 공사업 면허를 발 급해야 함	·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을 매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 무화	· 면허대여 등의 불합리한 관행시정 및 전기공사업계 의 자율 경쟁 체제 정착

전기공사기사 직무교육 완화

그동안 2년마다 1회씩 3일동안 21시간 받아야 했던 전기공사기사 직무교육이 올해부터 3년마다 1회씩 2일동안 16시간만 받도록 완화, 조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기사 직무교육 개정안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통보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전기공사기사 직무교육은 전기공사업체에 소속된 전기공사 1급, 2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절전 건물 요금특례제 연장해야

지난해 12월 31일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절전 우수건물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계 및 전기계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절전 우수건물 전기요금 감액제도가 건물부문에 절전을 촉발하는 등 효과가 높을 뿐만아니라 최근 전력수급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 제도적으로 정착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도시행과 함께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한전은 중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연간 사용전력량 4백만kWh 이상으로 규정된 적용대상을 3백만kWh로 낮춰 건물부문의 피크부하 억제에 기여토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 감액혜택을 받은 건물은 코리아나호텔 등 총12개 건물로 절전량은 1만6백36MWh/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미국 워싱턴주 변압기 수주

현대중공업(주) 중전기본부는 최근 미국의 워싱턴주 SEATTLE 전력청으로부터 HYDRO PROJECT에 소요되는 1500만달러 상당의 230KV급 변압기 PACKAGE를 일괄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는 1963년에 미국의 GE사가 공급했던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국제입찰로 실시된 이번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은 다국적기업인 ABB, 미국의 GE 및 이탈리아의 ANSALDO 등 세계 우수기업과 경쟁끝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현대변압기의 세계적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소식

수중조명기구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공업(주)은 최근 분수나 인공하천 등에 사용되어 아름다운 빛을 연출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수중에 설치하는 전용 조명기구로서 야간 오락시설 등의 증가에 대응하여 분수나 인공하천의 조명연출에 사용된다.

또한 적·녹·황·청의 컬러필터와 조합해서 화려한 빛의 연출도 가능하다.

광원에는 콤팩트한 100V 미니할로겐 전구를 사용하고, 50W까지 사용시설의 규모에 맞게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다.

수명길고 비용저렴한 유황전구

최근 미국 에너지부와 퓨전라이팅사의 합동개발계획에 의해 새로운 유황전구가 개발되었다.

「21세기의 혁명적인 조명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전구는 과거의 전구보다 훨씬 수명이 길고 비용이 극히 적게드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크기는 골프공만하며 기존의 고압축 수은전구보다 몇백배 강한빛을 낸다.

이 전구에는 전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전극이 없는데다 유황이 석면을 화학적으로 해치지 않기 때문에 몇년을 사용해도 전구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주로 가로수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전구가 오래 사용하면 빛의 방출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반해 이 유황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밝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는 강조한다.

절연저항계 개발

일본 共立전기계기사는 절연성을 중시한 손바닥



크기의 소형 절연저항계 신기종 「3144 시리즈」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시리즈는 3기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모델 3144는 250/500V, 모델 3145는 100/250V, 모델 3146은 50/100V 정격전압을 사용 광범위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낮은 절연저항치에 놓아 두어도 정격의 단자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다 현실적인 절연측정이 가능케 되었다. 특히 국제안전규격(IEC1010)에 준거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기타 충격에 강한 신소재 케이스를 채택하였고 오토디스차지기능, 스케일기능, AC전압계 부착 등이 있다.

일본, 전기요금 억제 일환으로 발전소 규제완화

일본 통산성은 전기요금억제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전기사업심의회 전력보안문제검토 소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고, 발전소 보안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전력회사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보안문제검토 소위원회 보고서의 주요골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의 보일러·송전선 등 설비공사계획의 인가 사항을 현재보다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의 경우 공사계획 인가대상을 70만kW 이상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일러, 터빈 등 주요 발전설비의 기술기준을 국제적인 규격으로 해서 해외제품도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 전력회사의 발전설비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회원(사)소식

전기안전관리 서울연합회 '94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전기안전관리 서울연합회는 구랍 12월 15일 서울 신림동 소재 삼모부페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4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태(대한전기안전기술단 대표)씨가 참석자 만장일치로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서울연합회는 회원사 수용가에 대한 영업활동의 지양, 회원사간 분쟁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 비회원사와 분쟁시 손실의 공동보상법 강구 등을 결의했다.

대전지역 전기인 조찬회 개최

- 일 자 : 1994년 12월 2일(수)
- 장 소 : 대전샾또 호텔
-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 회의내용 : 케이블 TV에 대해 논의

신규대행업체

- ◎ 청풍전기안전공사
 - 대표자 : 조성옥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44-5 유통상가 4동 318호
 - 등록번호 : 경기 제53호('94. 11. 3 등록)
 - 전화번호 : (0345)493-0472
- ◎ 대성전기안전관리(주)
 - 대표자 : 조정래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신천동 337-19
 - 전화번호 : (053)743-9035
- ◎ 명성전기관리(주)
 - 대표자 : 박장식
 - 소재지 : 경북 경산군 압량면 부적리 260-7
 - 전화번호 : (053)811-4266
- ◎ 명남전기기술공사
 - 대표자 : 엄정훈
 - 소재지 : 경북 경산군 진량면 신상리 1186
 - 전화번호 : (053)964-1906

축하드립니다.

- 부산지부 유충회회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합격